

전자상거래, 경기호전 가능할까?

산자부, e마켓플레이스 BIS지수 117.0 상회 ... 매출증가 기대

2004년 3/4분기 경기예측이 명암을 교차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부분은 경기호전이 예상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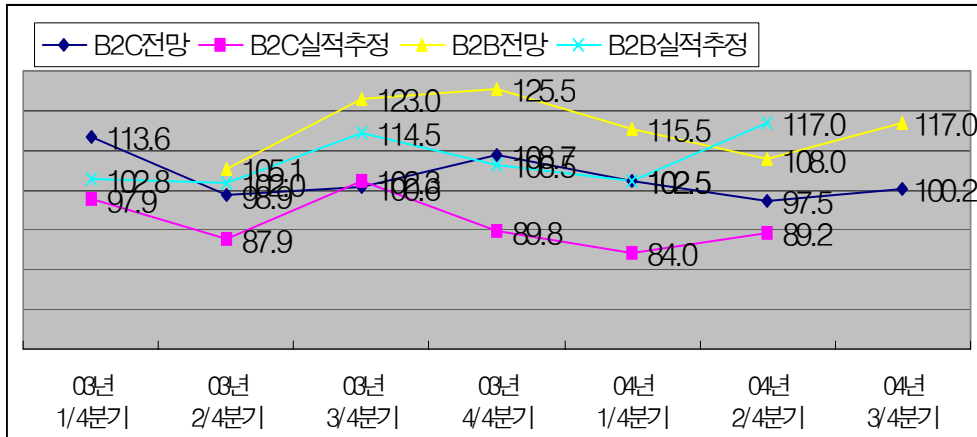
산자부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의뢰해 사이버쇼핑몰 및 e-Marketplace 51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<2004년 3/4분기 전자상거래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> 결과에 따르면, 사이버 쇼핑몰의 매출전망 BIS는 2004년 2/4분기 97.5에서 3/4분기 100.2로 나타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이 감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e-Marketplace의 매출전망 BIS는 117.0으로 2/4분기 108.0에 비해 상승세를 보여 지속적인 e마켓플레이스 시장 호전이 예상된다.

사이버쇼핑몰의 주요 BIS항목 조사결과에 따르면, 1/4분기 이후 하락세에서 3/4분기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반등해 사이버쇼핑몰업계 전반의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.

3/4분기 매출상승 예상 주요요인으로는 이벤트활동 증가 등의 마케팅 활동강화가 25%가량으로 가장 많았고, 휴가철등의 계절적 성수기, 쇼핑몰 취급상품의 증대 등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매출액 감소요인으로 사회전반의 경기불황요인이 43%로 나타나 경기 불황에 대한 불안심리가 아직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사이버쇼핑몰(B2C)과 e-Marketplace(B2B)의 BIS 지수동향



한편,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제조업의 2004년 3/4분기 BIS지수는 2/4분기 105에서 89로 낮아져 제조업 체감경기 위축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 <주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7/14>